

- 주요 뉴스: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입장
 - 중국 정부, 내년 연간 최대인 3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 계획
 - 바이든 미국 대통령, U.S. Steel과 일본제철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
 - 프랑스 신임 재무장관, 재정적자 감축을 우선시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한산한 장세가 전개된 가운데 산타렐리 기대감 등을 반영
 - 주가 상승[+1.1%], 달러화 강보합[+0.1%], 금리 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박테크 강세에 힘입어 상승 지속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광산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금리인하 축소 전망 등으로 소폭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재정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5년물 입찰 결과로 상승폭 축소
독일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

※ 뉴욕 1M NDF 증가 1457.3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8.88원, 0.09% 상승). 한국 CDS 보합

		12/24일	12/23일	전일대비			12/24일	12/2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40.0	5,974.1	+1.10%	국채 금리 10y	미국	4.59%	4.59%	+0bp
	유럽	503.81	502.91	+0.18%		독일	휴장	2.32%	-
	중국	3,393.5	3,351.3	+1.26%		영국	4.58%	4.55%	+3bp
	일본	39,037	39,161	-0.32%	CDS 5y	한국	37bp	37bp	0bp
	한국	2,440.5	2,442.0	-0.06%		중국	65bp	65bp	+0bp
	달러지수	108.13	108.04	+0.08%	위험 지표	EMBI+	-	365	-
환율	유로화	1.0393	1.0405	-0.12%		VIX	14.27	16.78	-14.96%
	엔화	157.28	157.17	-0.07%		WTI유	70.1	69.24	+1.24%
	위안화	7.2953	7.2960	+0.01%	원자재	구리	405.0	402.3	+0.66%
	원화	1,457.5	1,450.9	-0.45%		금	2,616.9	2,612.6	+0.1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입장

-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견조한 임금 상승세에 기반한 소비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2%)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10월 금정위가 미국 대선 이전에 진행된 만큼 경제 전망의 주요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 및 미국 정책 급변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한편, 12월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보다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경계. 임금 상승세 둔화, 예상을 하회한 3분기 GDP 성장률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2~3%)로 둔화할 경우 통화 긴축 정도를 완화할 방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중국 정부, 내년 연간 최대인 3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 계획

- 내년 중국 정부가 3조 위안(\$4,110억)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이는 '24년 발행(1조 위안)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것임을 시사. 발행액은 보조금을 통한 소비 진작, 첨단 부문 투자 등에 활용될 전망
- 금년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 부진, 지방정부 부채, 내수 둔화 등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4년 성장을 견인한 수출마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바이든 미국 대통령, U.S. Steel과 일본제철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

-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 산하 위원회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에서 U.S. Steel과 일본제철의 합병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결정권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관. 이 경우 15일 내에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

-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국가 안보 이슈 등을 근거로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 일본제철은 국가 안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업의 노력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합병을 무산시킬 경우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

■ 프랑스 신임 재무장관, 재정적자 감축을 우선시할 방침

- 12/23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내각을 구성했으며, 24일 롬바르드 신임 재무장관은 비우호적 대외 상황 및 환경·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언
- 다만, 내년 1/13일까지의 의회 휴회기가 종료된 이후 바이루 내각은 지속적으로 불신임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 '24년말 재정적자가 GDP 대비 6%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열된 의회 상황을 고려할 경우 '25년말 재정적자 5%로의 축소를 도모한 기존 예산안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

■ 인도 중앙은행, '24년말~'25년초 인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인도 중앙은행(RBI)은 '24년 4분기~'25년 1분기 인도 경제가 가계, 농촌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발표. 겨울철 식품가격 하락세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기대되며, 가계소비 및 수출 회복 조짐도 강해지고 있다고 첨언
- '24년 3분기 인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전년 대비 5.4%; 예상치 6.5%)한 가운데, 11월 CPI(5.48%)는 RBI 중기 목표치(4%)를 상회.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수요 둔화로 이어진다고 평가

■ 스타벅스 미국 노조, 파업 확대를 시사

- 스타벅스 미국 노조는 12/23일 12개 주요 도시에서 60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을 중단했으며, 5일간의 파업이 종료되는 12/24일 300개가 넘는 점포로 파업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 12월초 노조는 현행 임금 동결 및 추후 1.5% 인상안을 거부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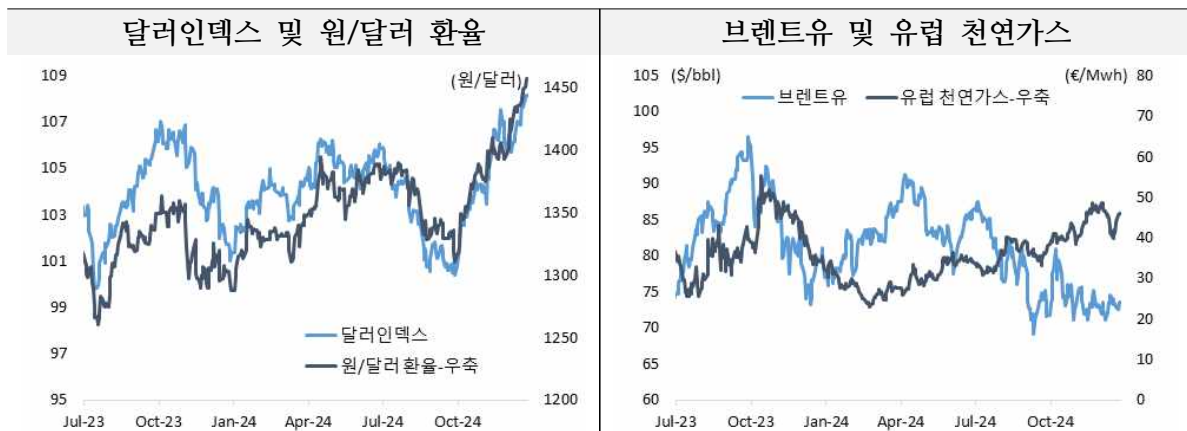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12월 비제조업 활동지수 -6.0(예상-2.4, 전월-5.9), 리치몬드 연은 12월 제조업지수 -10(예상-10, 전월-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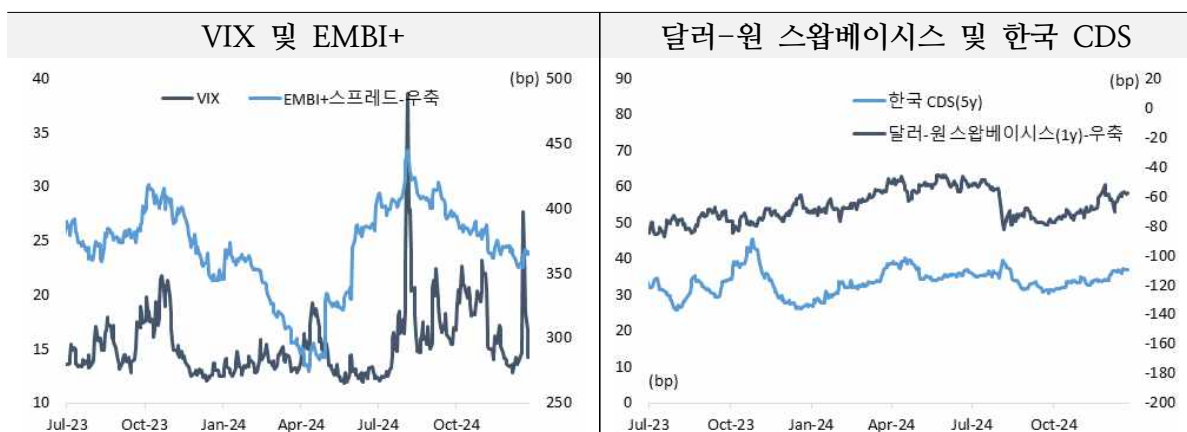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7, E-mail smpark@kcif.or.kr